

“빛의 밤을 즐기자”...원주 간현관광지 ‘나오라쇼’ 개장

미디어파사드·음악분수·야간경관조명 ‘3대 테마’ 구성



‘나오라쇼’의 음악분수

강원 원주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간현관광지의 야간코스인 ‘나오라쇼’(Night of Light Show)가 지난 8월 5일 정식 개장했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나오라쇼는 ‘간현에 나와 빛의 밤을 즐기자’라는 의미이다. 시설 보완 공사로 잠시 중단했던 나오라쇼는 정식 개장 이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폭 250m, 높이 70m의 자연 암벽에 연출하는 미디어파사드, 음악과 분수의 향연으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분수, 간현관광지 곳곳을 빛 조명으로 장식한 야간경관조명, 세 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나오라쇼는 오후 8시 30분에 한 차례 진행된다. 티켓링크에서 예약할 수 있고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5천 원, 소인 3천 원, 원주시민은 성인 3천 원, 소인 1천 원이다.

나오라쇼 광장에는 출렁다리와 소금 잔도, 울러 다리로 이어지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이용 시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옮겨 간직할 수 있는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해시태그(#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붙이면 키오스크 화면에 자동 연동된다. 이후 마음에 드는 사진과 프레임을 선택 후 인쇄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QR코드 모드를 선택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출력하면 된다. 이용료는 1장당 2천 원. 포토 키오스크를 활용한 관광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나오라쇼와 함께 여름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미디어파사드



소금산 그랜드밸리



야간경관조명



문화관광축제

2022 WONJU DYNAMIC DANCING CARNIVAL

Dancing Carnival

2022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10. 1(토) ~ 3(월)

댄싱공연장 일원

YouTube

원주댄싱카니발

본 인쇄물은 FSC 인증을 받은 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친환경 식물성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주최 | 원주시

주관 | 원주관광

후원 | 강원도 한국관광공사